

제 2 차 사료가격 15% 정도 인상

이미 예상되어 오는 바와 같이 제 2 차 배합사료가격 인상은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87% 이상의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11.7%~27.8%까지 상승된데 그 원인이 있는바 인상되는 폭은 대체로 15%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인상시기로는 옥수수 재고가 떨어지는 시기를 2월말경으로 추정한다면 3월 5일 전후가 인상예정시기로 예측된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1975년도 축산시책의 방향전환

농수산부에서는 1월 30일 각시도 축정과장 회의를 국제사료곡물의 가격폭등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외화부담의 가중을 막을 수 있도록 농후사료의존도가 높은 양계 및 양돈의 생산조정과 초식 가축증대를 골자로 하는 1975년도 축산시책을 각시도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농수산부의 축산시책방향을 살펴보면 농후사료 의존가축인 양돈이나 양계의 사육수 조정은 년중 사육총수나 육류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75년도에 필요한 육류증 육계만을 약간 낮은 수준에서 사육하면서 년말에 가서 다음해로 이월되는 닭, 돼지 기초수의 과잉보유를 억제하고 육류부족량은 소의 증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세부시책을 보면 첫째 신규기업양계 및 양돈의 억제와 부업장려 둘째, 부화장규모에 따른 병아리 부화수 조절 셋째, 육계용사료의 생산조정 등을 기하며 농후사료 의존가축의 생산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닭은 75년도 기초두수 1,880.5만수에서 4,753.8만수를 생산하여 4,934.3만수를 소비하므로써 년말에 1,700만수를 확보하

여 보유수를 10% 줄이고 돼지는 182.8만두에서 183.6만두를 생산하여 193.4만두를 소비하므로써 년말에 173만두를 보유하여 5%를 감소시키는 반면 소는 175.2만두에서 66.6만두를 생산하고 41.4만두를 소비하여 년말 보유두수를 200.4만두로 14.4%를 증식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초식성가축의 증식을 위하여 첫째, 한우는 농가입식수를 작년 34.6만두에서 41.9만두로 늘리고 전업 및 기업농가(20두 이상사육장)를 현재의 2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대단위목장을 현재의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려 년말에 한우사육두수를 200.4만두도 늘리고 둘째, 젖소는 7.3만두에서 9.1만두로 증식하여 우유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외화절약을 위해 신규수입은 불허하되 다만 작년 계약분으로서 미도입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며 셋째, 양토사업확대를 위해 토원피가공 수출원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의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첫째, 육류 및 생축의 수출을 촉진하고 둘째, 육류비축제를 실시하며 셋째, 우가(牛價) 하락시의 집중구매입식(65억원) 넷째, 생축담보용자제 실시 다섯째, 입식우의 용자금 상황시기 조절 등을 기하기로 했

다. 따라서 가축증식의 방향이 조정됨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도입량도 당초 계획량 53만톤에서 40만톤으로 13만톤을 줄이고 부족분은 녹사료증산 5만톤, 서강사료생산 10만톤, 고구마분말사료 1.5만톤, 기타가용자원개발활용 1.6만톤 및 초지조성확대 4,500ha, 담리작사료 작물재배 15,000ha, 섬바디재배 200ha 등 조사료증산으로 대체키로 하였기 때문에 기업양계거나 양돈가가 축산시책전환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1975년도에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합사료수급면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축산인 모두가 국가가 당면한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주요원자재의 확보란 대전제하의 우리의 축산업이 걸어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자세를 바로 인식하여 오늘의 불황을 타개하고 굳건히 전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사료수급 규모와 시책방향

가. 사료수급규모

1975년도 사료총수요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후사료 372.4만톤 조사료 618.7만톤 다음해 이월량 13.5만톤 계 1,004.6만톤이 소요된다.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구성비를 보면 37.8 : 62.2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후사료는 곡류 21.1%, 강류 48.1%, 식물성단백질사료인 박류 3.2%, 이분 1.8%, 패분을 비롯한 무기물사료가 1.4%, 그리고 식품부산물 24.4%가 소요된다. 또한 수요량에 대한 공급비율을 보면 농후사료는 1.7%가 부족한 98.3%를 공급하고 조사료는 101.1%를 공급하여 수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농후사료에 있어서는 곡류 무기물 및 식품부산물 등은 수요량에 대하여 100%공급이 가능한 반면 강류 6.6만톤 박류 1.2만톤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분을 1.2만톤 증산하여 박류부족량을 대체 충당하고 강류부족분 6.6만톤은 부득이 조사료의 증산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총물량수급면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본다.

사료수급규모와 구성내역을 보면 <표 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료는 이용되는 성질로 보아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대별되며 농-

<표 1>

75년도 총 사료수급 종합계획

단위 :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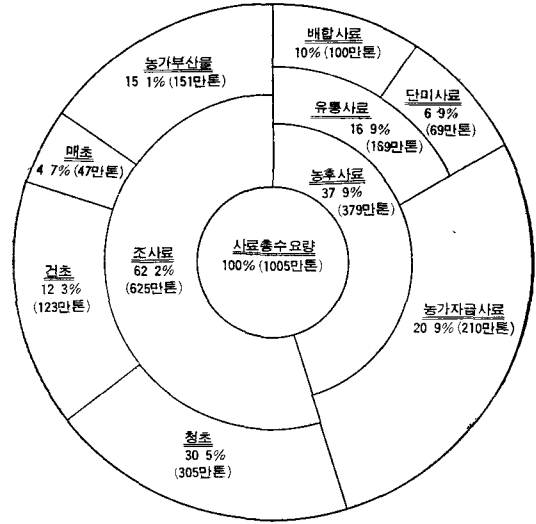
사 료 명	수 요 량			공 급 량				과 부 족	
	당년수요	차년이월	계	국내산	도 입				계
					전년이월	당년도입	계		
농 후 사 료	3,724	135	3,859 (21.1)	3,229	134	430	564	(98.3) 3,793	△66
곡 류	696	120	816 (48.1)	292	124	400	524	(100) 816	—
강 류	1,855	—	1,855 (3.2)	1,789	—	—	—	(96.4) 1,789	△66
박 류	109	15	124 (1.8)	72	10	30	40	(90.3) 112	△12
어 분	70	—	70 (1.4)	82	—	—	—	(100) 82	12
무 기 물	54	—	54 (24.4)	54	—	—	—	(100) 54	—
식 품 부 산 물	940	—	940	940	—	—	—	(100) 940	—
조 사 료	6,187	—	6,187	6,253	—	—	—	(101.1) 6,253	66
계	9,911	135	10,046	9,482	134	430	565	(100) 10,046	—

() 내는 %임.

후사료는 유통사료와 농가자급사료로 구분되고 유통사료는 다시 배합사료와 단미사료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조사료는 청초, 건초, 매초 및 농가부산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서지중사료가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유통사료로서 유통사료가 전체사료 수요량의 16.9%(166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100만톤이 배합사료의 형태로 기업양축가를 대상으로 하여 공급되고 나머지 69만톤중 55만톤이 비교적 규모가 적거나 주로 초식가축의 자가배합사료로 이용되고 나머지 13.5만톤이 다음해로 비축이월된다.

특히 사료수급전망을 살펴볼 때 농후사료는 공급면에서 식량과의 경합으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사실상 공급의 탄력이 적은데 비하여 조사료는 아직도 개발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하게 남아 있으므로 초식성가축의 증식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표 1) 사료수급규모와 구성



나. 배합사료생산 및 원료수급계획

1975년도 배합사료총수요량은 100만톤으로

〈표 2〉 '75 배합사료생산 및 원료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분	생산계획	비율	원료공급					차년이월
			구분	국내산	전년이월	도입	계	
양계용	450	45	곡류	73	124	400	597	120
육계용	120	12	강류	325	—	—	325	—
양돈용	250	25	박류	72	10	30	112	15
낙농용	110	11	어분	62	—	—	—	62
기타	70	7	무기물	39	—	—	39	—
계	1,000	100	계	(50.3) 571	(11.8) 134	(37.9) 430	(100) 1,135	135

() 내는 비율(%)임

추정되며 구성비를 보면 양계용 45% 육계용 12% 양돈용 25% 낙농용 11% 비육우 및 농축사료가 7%로 되어 있다. 원료별 공급내역을 보면 국내산으로 50.3% 전년이월분으로 11.8% 그리고 도입분으로 37.9%를 공급하되 113.5만톤 공급량중 88.1%인 100만톤은 당년 배합사료수요를 충족하게 되고 나머지 11.9%인 13.5만톤은 다음해로 비축이월시키기 때문에 년중 원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배합사료원료의 구성비를 보면 곡류가 47.7% 강류사료가 32.5% 박

류가 9.7% 어분이 6.5% 그리고 무기물사료가 3.9%로 구성되어 있는바 수요의 급증이나 급격한 원료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항상 이와 같이 13.5만톤(곡류 3개월 소요량 박류 1.3개월 소요량)이 비축이월되도록 계획되고 있으므로 원료수급상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주요단미사료가격 추세

국내 주요단미사료와 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한국도착기준)를 보면 〈표 3〉〈표 4〉

〈표 3〉

주요단미사료 도매시세표(1975. 1. 1일 현재)

단위 : 원/kg

종 별	서울지방도매시세			대 비 (%)	
	'74 2/15	'75 1/15	'75 2/15	75. 2. 15 / 74. 2. 15	75. 2. 15 / 74. 1. 15
옥수수(도입)	64.40	78.52	78.52	121.9	100
옥수수(국산)	73	86	86	117.8	100
대두박	133	133.25	(150) 135	101.5	101.3
입박	94.20	86.75	91	96.6	104.9
호마박	95.80	86.25	91	95.0	105.5
채종박	83	62.50	75.60	91.1	121.0
옥수수배아박	62	55	62	100	112.7
맥강	47.50	41	46	96.8	112.2
탈지강	50.30	42.50	47	93.4	112.8
소맥피	20	21	21	105	100
어분(상)	140	140	144	102.9	102.9
어분(중)	117	120	120	102.6	100

() 내는 동방유량(주)산 대두박 가격임.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시세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시세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국내산 단미사료시세

국내주요단미사료시세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15대비 2/15일 시세를 보면 옥수수는 가격변동이 없으나 대두박시세는 1.3%(현재 동방유량산 kg당 150원호가) 입박 4.9% 호마박 5.5% 채종박 21% 그리고 옥수수 배아박이 12.7%가 각각 양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맥강이 12.2% 탈지강이 12.8%가 양등추세에 있고 어분상품이 2.9% 양등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격변동추세를 살펴볼 때 곡류는 현재 원활히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특히 박류사료가격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시세는 계속 하락하여 국내도착가격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때다가 지난해 생산된 국내산원료가 거의 바닥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며 또한 강류사료시세가 크게 양등된 것은 7분도쌀의 유통으로 강류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소맥분의 가수요로 사실상 소맥피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7분도쌀의 영향은 적으나 농협을 통

하여 배정되는 소맥피의 일반양축가에 대한 배정이 적기 때문이다.

나. 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

'74.10.3 현재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한 옥수수 수입예정 가격은 5월선적에 \$194 7월선적에 \$195까지 하였으나 11.3일에는 5월선적에 \$189 12.3일에는 \$182로 그리고 '75.1.16에는 \$173로 2월 3일에는 \$156 2.12일 현재에는 \$157로 시세가 하락하여 비교적 이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75.1월부터는 금년 신곡이 수입될 수 있는 12월선적분이 \$160 수준이하로 수입가능시 되고 있으며 5~7월 선적분도 \$160이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옥수수가격 \$175수준보다 9.4%가 하락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같은 시세는 3-4월에 수확되는 남반구의 작황과 5월의 미국산 옥수수파종 그리고 북반구의 하곡수확전망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두박을 비롯한 채종박 등이 국제수지의 개선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수입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미국의 대두박시세는 2월 12일현재 3월선적에 \$203 5월선적에 \$209 7월 선적에 \$215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와같은 시세는 지

〈표 4〉

옥수수 및 대두수입예정가격 추세표(C&F가격)

가. 옥수수

단위 : \$/톤

조사일자	선적월	75.3	5	7	9	12	'76.3	비고
74. 10. 3		—	194	195	187	171	—	
74. 11. 3		—	—	—	186	169	172	
74. 12. 3		—	182	183	777	161	163	
75. 1. 6		171	173	174	166	154	153	
1. 10		167	167	169	163	151	154	
1. 14		167	168	168	161	150	151	
1. 17		159	161	162	159	145	147	
1. 20		155	157	158	152	142	144	
1. 25		158	160	162	157	149	150	
1. 31		155	157	159	155	148	150	
2. 3		158	156	157	154	147	150	
2. 5		155	157	158	154	148	150	
2. 10		155	157	158	154	147	150	
2. 12		155	157	158	149	147	149	

나. 대두박

단위 : \$/톤

조사일자	선적월	75.3	5	7	8	9	10	12	76.1
74. 10. 3		268	272	275	278	273	—	—	—
11. 3		249	254	257	257	252	—	—	—
12. 3		239	246	247	249	251	—	—	—
75. 1. 6		228	236	243	244	250	249	251	256
1. 10		226	232	237	239	242	243	245	245
1. 20		202	209	215	216	220	226	226	225
1. 25		208	216	220	224	227	228	230	230
1. 28		209	216	222	225	224	231	232	231
1. 31		203	210	215	217	221	223	226	226
2. 10		204	210	215	217	221	225	230	192
2. 12		203	209	215	219	214	224	227	230

자료 : 로이터통신에서

난해 10월 3일 시세에 비하면 톤당 \$65가량 하락되었으며 11월 3일 시세와 대비하면 \$46 12월 3일 시세에 비하면 \$36 차이가 있으나 '75.1.6에는 전월보다 3월선적에 \$11이 그리고 5월선적에 \$10이 하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난 10월 이후 급격한 변동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서도 일부박류사료의 수입충당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4. 배합사료 생산실적과 전망

1974.1~12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총정리하고 이를 다시 1967년도부터 년도별로 대비하는 동시에 양계에 여러분의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75년도 당국의 배합사료 생산계획을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74년도 배합사료생산량은 양계용이 554,433톤으로서 전년대비 19.1%(130,897톤)

가 감소하였으나 양돈용은 55% (67,006톤)가 증산되었고 젖소용은 48.3% (39,865톤) 비육우용은 737.9% (39,935톤) 그리고 농축사료등 기타사료가 11.3% (1,641톤)가 각각 증산되었다. 또한 양계용사료의 생산량을 용도별로 대비하여 보면 육추용이 175.5% (19,557톤) 성계용이 14.8% (66,600톤) 그리고 육계용이 35.9% (44,740톤)가 각각 감소한 결과 1974년도에는 양계용 배합사료만이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배합사료의 년도별 생산실적을 대비하여 보면 1967년대비 1973년까지는 년평균 124.7%가 증가하였으나 1974년도에는 전년대비 겨우 1.9%인 17,550톤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또한 배합사료의 용도별 구성비의 변천추세를 보면 1967~1972년도의 양계사료의 비중은 최저 81.4에서 최고 90.6%로서 우리나라 배합사료의 주종은 양계용사료이었음을 시사할 수 있으나 1973년도에는 75.3% 1974년에는 59.8%로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양계사료 비중이 60%이하로 접차로 줄어들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양계용사료의 비중이 연간 3%범위로 매년 감소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리고 돈육의 매일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규격돈 생산을 위한 양돈사료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여 1972년도까지만 하여도 불과 2~7.7%범위 내에서 생산되던 것이 1973년에 13.4% 1974년에 20.4%로 증가하여 비로소 양돈사료의 비중이 1974년에 와서야 20%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밖에 낙농용사료는 이제까지는 기초두수가 적었기 때문에 도입 등에 의한 기초수의 증가로 매년 급진적으로 신장하여왔다고는 하나 그 비중은 영세하여 1971년까지는 4.8%이하 수준에 미달되었으나 이후 년평균 2.8%인 29,740톤씩 매년 증산되고 있으며 이는 약 10,000두분의 배합사료에 해당된다. 또한 비육우용사료는 1971년 이후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1%이하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이 대단위 기업독장의 출현과 비육우사육장려로 1974년도에는 1973년도에 비하여 약 7.4배에 해당되는 4만톤이나 증산되었기 때문에 낙농 및 비육우등 육우용사료의 비중이 18.1% 수준까지 증가하여 양돈사료를 육박하

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1975년도 배합사료생산계획과 1974년도 생산실적을 대비하여 보면 총생산계획은 1974년도 생산실적 927,170톤보다 7.9%가 증가한 100만톤이나 이를 가축별로 대비하여 보면 육추 및 성계용사료는 1974년의 474,437톤에 비하여 5.1%가 감소한 450,000톤이고 육계용사료는 1974년도의 79,996톤에 비하여 50%가 증가한 12만톤 계 57만톤으로서 양계용 배합사료 전체로 볼 때 1974년도 554,433톤에 비하면 2.8%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1975년도에 기업양계를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 사료자원면을 감안한 앞으로의 시책방향의 전환의 불가피성에 입각한 착상과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장 우리의 목전에 양계사료의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님을 재삼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현재의 양계사육수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양계용 배합사료수요량이 사실상 증대되리라고 믿는 양계가도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또한 양돈사료를 보더라도 1974년도의 188,828톤에 비하여 32.4%가 증가한 25만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돈육의 매일수출용 규격돈생산을 위해서나 배합사료생산계획을 보더라도 기업양돈의 억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낙농용사료생산실적이 1974년도의 122,409톤인데 비하여 11만톤을 생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젖소사육수의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듯한 감이 없지 않으나 조사료의 자급기반이 전혀없이 농후사료구입에 의존하여 기형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집약적 도시근교 낙농업의 억제와 달리작 사료작물재배에 의한 자급도제고로 양질조사료를 확보하여 젖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볼 때 무리한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비육우사료와 농축사료생산계획 7만톤을 감안할 때 1975년도 배합사료생산계획은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생산계획이라 사료되는바 지나친 기우는 버리고 경영합리화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5〉

배합사료생산실적과 '75년도계획

단위 : 톤

사료별 년도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기 타	합 계	증가율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1 9 6 7	(14.7) 15,779	(65.0) 69,688	(1.7) 1,873	(81.4) 87,340	(7.7) 8,246	(4.3) 4,579	—	(6.6) 7,091	(100) 107,256	100
6 8	(25.2) 56,411	(56.8) 126,782	(2.4) 5,285	(84.4) 188,488	(6.6) 14,671	(3.4) 7,659	—	(5.6) 12,496	(100) 223,314	208
6 9	(10.8) 39,815	(64.2) 235,763	(7.4) 27,134	(82.4) 202,712	(7.2) 26,512	(3.7) 13,489	—	(6.7) 24,805	(100) 367,518	343
7 0	(14.5) 73,630	(62.4) 316,437	(13.7) 69,631	(90.6) 459,698	(2.0) 9,997	(3.8) 19,333	—	(3.6) 18,616	(100) 507,564	473
7 1	(12.4) 86,963	(60.8) 427,285	(14.1) 98,905	(87.3) 613,153	(2.8) 19,919	(4.8) 33,186	(1.0) 7,184	(4.1) 28,668	(100) 702,110	655
7 2	(12.4) 96,422	(55.6) 434,202	(14.9) 115,704	(83.2) 646,328	(6.3) 48,317	(6.8) 52,980	(0.8) 6,194	(2.9) 22,417	(100) 776,236	724
7 3	(12.3) 111,751	(49.3) 448,843	(13.7) 124,736	(75.3) 685,330	(13.4) 121,822	(9.1) 82,544	(0.6) 5,412	(1.6) 14,512	(100) 909,620	848
7 4	(10.0) 92,194	(1.2) 382,243	(8.6) 79,996	(59.8) 554,433	(20.4) 188,828	(13.2) 122,409	(4.9) 45,347	(1.7) 16,153	(100) 927,170	864
74 / 73(%)	(82.5) 7,167	(85.2) 30,612	(64.1) 3,702	(80.9) 41,481	(155.0) 12,463	(148.3) 9,022	(837.9) 1,177	(111.3) 516	(101.9) 64,659	94.6
74, 1	6,075	30,113	3,144	39,332	14,539	8,701	1,786	796	65,154	111.7
2	6,743	30,827	3,630	41,200	14,953	8,774	2,005	3,438	70,370	91.7
3	6,963	31,017	6,065	44,045	15,023	9,179	2,933	2,624	73,804	95.8
4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103.9
5	8,181	31,736	8,974	48,891	16,708	8,045	3,265	707	77,616	105.4
6	8,163	31,664	9,730	49,557	16,214	8,306	3,265	736	78,078	96.1
7	7,730	29,753	8,585	46,068	15,886	9,046	4,557	935	76,492	95.8
8	7,248	31,354	8,007	46,609	17,246	11,222	5,846	770	81,693	96.1
9	8,796	35,801	7,882	52,479	18,328	13,543	7,149	1,119	92,618	114.9
10	7,555	31,388	5,561	44,504	15,961	13,011	5,340	1,369	80,185	104.7
11	9,459	37,864	6,729	54,052	14,254	14,099	4,770	1,174	88,349	113.7
7 5(계획)	(45.0) 450,000	(12.0)	(57.0) 570,000	(25.0)	(11.0)	(7.0)	(100)	—	1000,000	932

() 내는 %표시임.

5. 배합사료가격인상에 대한 검토

가. 제 2차가격인상 요인

3월초의 제 2차 가격인상요인을 보면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원료비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입옥수수가격이 톤당 78,528원에서 환율인상과 하역비 및 수송비양등으로 22.9%가 증가한 96,500원 수준이며 기타곡류인 타피오카 수입가격이 23.9%가 상승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맥강가격이 요사이 풀키현상으로 27.8%가

양등되었고 탈지강이 17.5% 대두박이 동방유량 진해공장도가격 톤당 123,000원이 다행히 종전 대로이고 호마박 임박등 박류가격이 11.7% 박류B(채종박(70%) 구루틴(15%) 그리고 배아박(15%)가 23.6%가 각기 양등된 반면 겨우 수백톤 밖에 수입되지 않는 우지가격이 11.0% 하락하였으며 전체 배합사료중 배합율이 7~8%이내인 어분, 골분, 패분, 식염, 녹사료, 첨가제 등이 포함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제 2차 배합사료가격인상 요인은 환율변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87%이상의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11.7%~

〈표 6〉

배합사료 원료비 단가 대비표

단가 : 원/톤

원 료 명	75.1/6 (A)	2/1	2/15	3/초 (B)	인 상 율 (B/A)
옥 수 수	78,528	78,528	78,528	96,500	22.9
기 타 곡 류	48,806	48,806	48,806	60,450	23.9
소 맥 피	20,959	20,959	20,959	20,959	0
맥 강(시중)	36,000	46,000	46,000	46,000	27.8
탈 지 강(시중)	40,000	46,000	47,000	47,000	17.5
대 두 박	127,428	140,000	150,000	127,428	17.0
박 류 A	81,500	91,000	91,000	91,000	11.7
박 류 B	65,925	78,575	81,495	81,495	23.6
어 분(상)	140,000	144,000	144,000	144,000	2.9
어 분(중)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골 분	70,000	70,000	72,000	72,000	2.9
우 지	191,000	191,000	191,000	170,000	△11.0
패 분	7,500	7,300	7,300	7,300	△2.7
인 산 칼 습 제	122,000	122,000	122,000	122,000	0
식 염	23,000	23,750	23,000	23,000	0
늑 사 료	64,376	64,376	64,376	64,376	0
첨 가 제	330,000	330,000	330,000	330,000	0

27.8%까지 상승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며 또한 원료가격상승에 따른 배합사료판매의형액 증가로 과세소득표준액과 조세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 가격인상시기

사료협회 회원공장의 400 : 1 환율적용 옥수수 재고의 전공장평균 사용완료예정 시기는 지난 3개월 사용실적을 기준할 경우 2/25일로 예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재고가 빨리 떨어지는 공장은 2/15경부터이며 최종적인 공장의 사용완료예정시기는 3월중순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5.1~2월의 옥수수 사용실적이 다소 부진상태에 있으며 구정 휴업과 2월이 28일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재고는 2/28일을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재고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베이커와의 경합때문에 3/5일 전후가 사실상 인상예정시기가 되며 다소의 시차는 있으나 3/10일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전망된다. 재고가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처음 며칠간은 사료공장이 결손을 감수하게 되겠지만 중국에는 결손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품질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적으로나 양축가의 입장에서다 다같이 손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피해를 예방하여야 될 것이다.

다. 가격인상범위

배합사료가격은 종전의 가격사정승인제가 10.7일자로 철폐되었기 때문에 배합사료공장의 원료사정과 배합사료품질관리에 대한 기술 및 경영합리화정도 여하에 따라 상이하게 거래되겠지만 본인이 월간양계지 2월호에 소개드린 바 있는 배합사료의 원가계산에 따라 편의상 그대로 원가를 산출하여 보면 〈표7〉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어린병아리 15.14% 중병아리 15.07% 큰병아리전기 16.18% 산란전기 15.20% 산란중기 15.54% 산란말기 15.37% 육계전기 15.32% 육계용후기 1 14.82% 산란용중계 16.10% 육계용중계가 16.04%의 각각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수치는

사 료 명	'75 1/15 (A)	2 / 1 5		3/	
		단 (B) 가	(B/A)	단 (C) 가	(C/A)
어 린 병 아 리	93.18	97.09	104.20	107.29	115.14
중 병 아 리	80.40	82.63	102.77	92.52	115.07
큰 병 아 리 전 기	70.77	72.80	102.87	82.22	116.18
산 란 전 기	82.00	83.69	102.06	94.46	115.20
산 란 중 기	75.86	77.46	102.11	87.65	115.54
산 란 말 기	71.44	72.80	101.92	82.42	115.37
육 계 전 기	97.57	99.69	102.17	110.21	115.32
육 계 후 기 1	94.25	96.84	102.75	108.22	114.82
산 란 중 계	89.03	92.40	103.79	103.36	116.10
육 용 중 계	88.84	92.32	103.92	103.09	116.04

위에서도 언급한바 있거니와 원료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사료적특성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의 배합율을 작성하려고 각 메이커가 노력하기 때문에 배합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편이상 종전산출하였던 배합율에 원료별 단가를 승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호를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메이커의 원료사정이나 기술여하에 따라 또는 배합사료의 용도에 따라 메이커간에 또는 사료별로 1~2%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메이커라 하더라도 경영합리화와 원료구매의 적정을 기한다면 1~2%의 원가절감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원가절감방안이 품질을 인하시키는 방안으로 발전되는 일은 없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하겠다.

라. 가격전망

제 2 차가격인상범위가 국내 부원료가격의

특별한 변동이 없이 2/15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면 대체적으로 15% 수준에서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배합사료공장은 이보다 1~2% 범위내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같은 시세는 7월말까지 지속되고 8월부터는 현재의 옥수수시세를 보나 4월이후 국내 어분 생산량이 증가하고 6월에 채종실이 풍작을 이루고 또한 동방유량에서 현재 확보중인 값이 비싼 대두박을 소비하고 앞으로 보다 싼 값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8월부터는 5% 수준이상의 가격인하가 가능시되지 않을까하는 전망이다니 금년상반기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꾸준한 노력과 사양기술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로 극복하고 다같이 협력하여 생산조절로 제값받기에 힘써 준다면 양계업은 전망이 오히려 밝아질 가능성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 양계인의 벗

- ◇ 월간양계 {반년분 : 1,200 원
1년분 : 2,000 원}
- ◇ 월간양계 합본 (8. 9. 10권) : 권당 2,000 원
- ◇ 경영일지 : 권당 150 원

신청 : 서울 중구 양동 44~28 22~3571~2
대체번호 : 519272 번